

제73회(2024년도) 개천예술제
전국휘호대회

<한글시제>

<한글시제 1>

강호에 떨어져 산 지 며칠이나 되었던고
거닐며 시를 읊다 높은 누에 올라 보네
공중에 비끼는 비 한 때의 변화라면
눈에 드는 긴 강은 만고의 흐름이라

-퇴계선생 축석루 시 중에서

<한글시제 2>

온전(穩全)한 예술(藝術)이란 사람의 목숨과 같이
영원(永遠)히 자유(自由)롭고 대중적(大衆的)인 것이다.
기름지고 오오랜 땅 위에 커다란 꽃송이가 피어나듯이
힘차고 참다운 마음 위에서만 위대(偉大)한 예술(藝術)은
꽃피는 것이다.

-과성 설창수 선생의 개천예술제 창제 취지문 중에서